



리시리 레분 사로베츠 국립공원의 모습

최북단의 벌판, 사로베츠

상공에서 바라본 사로베츠벌판

일본에 남아있는 귀중한 대습지

사로베츠 습지는 예전에 남북 27km, 동서 8km, 면적 14,600 ha 에 이르러 홋카이도 (北海道) 의 습지로서는 이시카리 (石狩) 이탄지와 쿠시로 (釧路) 습지 다음으로 큰 규모였다. 1960 년대 중기 이후 개발이 진행되면서, 현재의 약 6,700 ha 만 남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시로습지와 오제 (尾瀨) 국립공원의 오제가하라 (尾瀨ヶ原) 와 함께 일본의 대표적인 습지이며, 저지대에 분포하는 고층습지로서는 일본 최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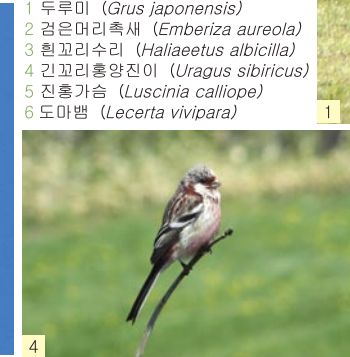
광활한 사로베츠벌판

습지의 생물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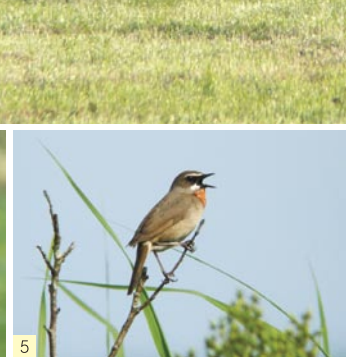
사로베츠 벌판과 해안 사구림 (砂丘林) 일대에는 에조사슴과 쇠뿔쇠, 긴발톱황미새, 검은딱새, 긴꼬리홍양진이 등 많은 조수류가 서식 한다. 지금까지 일본에서는 홋카이도의 동쪽지역에만 서식 하고 있던 두루미도 2004 년 이후 사로베츠에서 서식을 하고 있다. 그 외 흰꼬리수리, 개구리매 등의 희소 맹금류, 파충류에 중에는 일본내에서 홋카이도 (北海道) 북부에만 분포하는 도마뱀도 볼 수 있다.



3



4



5



6

- 1 두루미 (*Grus japonensis*)
- 2 검은머리족새 (*Emberiza aureola*)
- 3 흰꼬리수리 (*Haliaeetus albicilla*)
- 4 긴꼬리홍양진이 (*Uragus sibiricus*)
- 5 진홍가슴 (*Luscinia calliope*)
- 6 도마뱀 (*Lecerta vivipar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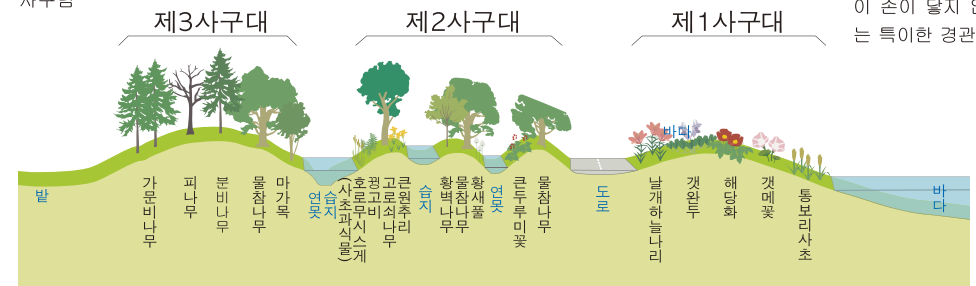
1



2



사구림



사구림 단면도

칼럼

습지 개발의 역사와 자연재생을 위한 대처

한랭한 기후의 사로베츠 벌판은 농업이용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홋카이도(北海道) 개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전반까지 일부에서 토탄의 채굴 등이 이루어졌지만, 농용지의 개발은 습지를 둘러싸고 있는 건조한 구릉지로 한정되어 있었다.

제2차 대전 종료 후, 사할린으로부터 인양자 등의 이주가 시작되고, 1950년대 후반에는 대규모 종합개발사업이 수행되면서 사로베츠 방수로 등도 완성되었다.

그러나, 이때부터 쓸모없는 토지였던 습지의 가치가 재검토되어 보존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1974년에는 그 주요부가 국립공원에 편입되었다.

하지만, 그 당시까지 시행된 개발사업의 일부인 배수로 설치공사 등에 의한 습지의 건조화와 조릿대의 침입이나 호수와 습지로의 토사유입에 의한 환경변화 등이 나타나게 되면서, 토탄 채굴지의 습지 복원, 습지의 수위저하방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재생을 위한 대처가 시작되었다.

자연 그대로 남겨진 해안생태계

공원 내의 해안에는 수열의 사구가 해안에 평행으로 줄지어 있다. 자연 해안 그대로 잔존하는 부분이 많고, 바다와 육지를 잇는 식생분포가 잘 남아 있다. 해안에는 해당화와 갯그렁 등의 해변식물이 있으며, 해안에 접한 사구에는 강풍 때문에 가지가 모두 육지측을 향하며 깎아 놓은 것 같은, 낮은 물참나무숲이 있다. 그 안쪽의 사구에는 분비나무를 주로 하며, 에조고로쇠나무 등이 섞인 숲이 있고, 안쪽으로 갈수록 수고(樹高)가 높다. 사구간의 낮은 지대에는 연못이나 습지가 있어서, 습지식물이 생육하고 있다. 사구림은 전체적으로 거의 사람이 손이 닿지 않아 원시적인 분위기가 많이 나는 특이한 경관을 볼 수 있다.



습원의 수위저하방지를 위한 독



상공에서 내려다 본 이탄채굴지